

since 1955
CONTEMPORARY LITERATURE

現代文學

MAY 2016
VOL 737



2016-5

제61회 현대문학상 수상자 특집
인터뷰 특집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정미경 정이현
시 강지혜 김윤식 박수현 박후기 신두호 여 정 유형진 이 원 이윤설 황인숙
장편연재소설 김 슴 김희선
짧은 이야기 이우환

나직한 잡음이 들려오는 가운데, 화분들 사이를 한 여인이 느린 걸음으로 걸어간다. 여인이 화분 걸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마치 화초들이 고유의 음으로 여인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듯, 툇이 다른 전자음이 들려온다. 그렇게 여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음악이 된다.

이 영상은 완벽한 미장센과 음악적 구성으로 독특한 영상미를 만들어내는 비디오 작가 오민의 작품이다. 얼핏 화초와 인간의 교감쯤으로 보일 법한 이 미장센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화초와 인물 사이의 보이지 않는(어쩌면 존재하지도 않는) 긴장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작가의 창의적인 장치다. 화분의 화초는 자연을 애완의 대상으로 삼은 인간이 그 일부를 인위적으로 떼어 담은 것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조금도 의혹의 눈으로 바라본 적이 없을 이 아름다운 애완의 양태가 화초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 오민은 그 일방적인 관계를 의심하고, 인간의 화분 가꾸기를 화분 속에서 반자연, 반인공의 상태로 존재하는 화초와 인간 사이의 일종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힘겨루기로 바라본다. 그리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작가는 인간과 화초 사이의 기류를 임의의 음가價들로 치환하고 그 이외의 여백, 즉 화초 주변 공간의 공기는 중성적인 화이트 노이즈로 청각화했다.

모든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들만을 추출하여 만들어진 오민의 영상은 '통제의 미학'이라 불릴 만큼 정제되고 고요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그 추상성과 정제미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감각을 곤두세우고 침전된 감각들까지 흔들어 깨운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오민이 소리와 음악으로 그린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 아름답게든 불편하게든.

—태현선(삼성미술관 Leeum 수석연구원)